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시작

### 4월 28일까지 동일 서식에 접수...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은 3월 10일까지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실시한다. 각 직불제의 신청기간은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동일하게 정해 접수받고,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같은 날부터 3월 10일까지 받는다. 특히 농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2월부터 실시한다. 우선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쌀 가격과 관계없이 ha당 100만원이 제공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18만8,000원/80kg)보다 내려갈 경우 차액의 85%선에서 지원된다.

2005년~2008년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 농업인과 2014~2016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 중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농촌 외 거주자 중 1만㎡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인 50ha다. 들녘경영체 농업법인은 400ha까지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 논이모작(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으로 나뉜다.

2014년~2016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 이상이거나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외 거주자는 면적이 1ha 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한다. ha당 밭 고정직불금은 평균 45만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된다. 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 제공된다. 모든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로 경작을 해야 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직불제 신청기간 동안 관할 읍·면·동 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접수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농업인 접수 편의를 증대한다. 신청접수 시 유의할 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한 장의 동일 서식에 종합해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와 재배품목을 구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8일 첫운행

### 김제·부안·정읍·고창·목포·광주 방면 정차

전주시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일 첫차부터 정류소 정차가 시작된다. 이번 운행되는 서부 정류소는 김제와 부안, 정읍, 고창, 목포, 광주 방면 노선의 시외버스가 운행되며 전복고속, 대한고속, 전주고속, 안전여객 4개사 25개 노선 195회 가 매일 정류소를 경유해 운행하게 된다.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에는 효자동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도청, 도교육청 등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유동인구가 늘면서 시외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전주시 서부권 주민들의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의 신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마련됐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 효자동 정류소 신설에 대한 유관 기관·운송업체 등 협의 절차 모두 마친 후 지난해 7월 정류소 설치 공사를 시작한 지난 달 공사가 마무리 됐다. 특히, 매표소는 캠핑카와 카페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캠핑카를 연상할 수 있게 해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마치 여행을 떠나는 즐거운 마음이 들게 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협의회 의장인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전북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과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계획안을 심의했고, 전북도 평생교육 진흥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교육부의 5년 단위 계획인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립하는 것으로 평생학습 추진체계와 협력체계의 기반구축을 목표로 했다. 또한 국가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부인군이 신규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평생교육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 평생교육실무협의체 운영과 진흥원 운영 활성화 등 추진체계와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평생학습축제와 프로그램 지원 등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전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20여개의 전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원을 조기에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생학습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협의회 의장인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

## 현대중 군산조선소 준치 1인 릴레이 시위

### 군산시의회 의원들,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에서

1일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갖고 군산조선소 준치 시위를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조선소 폐쇄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파탄시킨다"며 군산조선소 준치에 사할을 걸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군산조선소 폐쇄는 협력업체 줄도산으로 근로자 6500명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어 전북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뜨겁게 현대중공업을 응원해 온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수 조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업체는 살리면서 서해안 최초의 최첨단시설을 가진 군산조선소의 단 하나에 불과한 도크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군산과 전북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선업계 회복세가 전망되는 내년까지 군산조선소 가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군산조선소 준치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에 동참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북도, 화재 사망자·재산 피해 대폭 늘어

### 사망자 전년 대비 70% ↑ · 재산피해 99억으로 31.78% ↑ ... 화재건수 1.1% ↑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 도내 화재가 1,983건으로 전년 1,962건과 비슷하게(21건, 1.1%증가) 발생했다. 전체적인 인명피해는 전년도 70명에서 56명으로 14명(20%) 줄었으나 사망자는 전년 10명에서 17명으로 7명(70%)이 늘었고, 재산피해 또한 대폭 늘어 전년 75억에서 99억으로 24억여 원(3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건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주거시설 화재가 504건에서 548건으로 44건(8.72%) 증가했고,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기타화재가 345건에서 364건으로 19건(5.5%) 증가했다. 지난해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증가한 한 해였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전년도 60명에서 39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10명에서 17명으로 7명이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의 대부분인 12명이 주거시설 화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중

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은 유난히 재산피해가 대폭 늘어난 한 해였다. 1억원 이상 재산피해 화재가 전년 7건에서 14건으로 100% 증가했다. 산업시설(공장, 축사 등)의 피해액이 24억원으로 가장 큰 폭(62.8%)으로 증가했고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액도 2.4억원으로 23.8% 늘었다. 지역별 화재발생건수를 보면, 전주시가 488건, 군산시가 285건, 익산시 27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근 기자

## 도,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시행

###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 ·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등

전북도는 도내 여성농업인 복지향상과 청년층의 농촌지역 유입을 돕고자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와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은 지원연령을 25-65세(단 20-24세 기혼 여성농업인도 지원)로 확대 운영하고 취급점을 대폭 늘린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은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에서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 사

용업종을 지난해 16개에서 관광여행사, 회원 등 9개를 추가해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서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수혜자가 매년 감소되고 있어 복지혜택을 확대해 출산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농촌지역 실질 임금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1일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일수는 70일로 확대해 1인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